

정답 A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②	③	③	①	④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②	③	④	④	①	④	②	②

해설

1. ① A: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밤엔 빠주세요.
B: 그거 좋네요. 그럼 오늘 밤에 보겠습니다.
② A: 세금인상은 가능한거죠?
B: 네. 저의 승진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③ A: 왜 그녀는 그렇게 우울한거지?
B: 나도 모르겠는데..아마 컴퓨터가 또 고장나서 그런 것 같아.
④ A: 그 프로젝트에 대해선 어떤 생각도 안떠올라요.
B: 걱정하지마세요. 저는 그걸 가져갈 수 없어요.
2. 해설:
A: 우리가 아까 전에 다리 지났으니까 곧 오두말이 보일텐데...
B: 오 저기 봐봐! Windmill Road로 향하는 표지판이 있어
A: 잘됐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가야하지?
B: 표지판에서부터 1마일만 더 가면 돼. 계속 가
A: 알겠어 봐봐! 저거 같은데?
B: 저건 브랜드의 자동차자나 저들이 우리보다 빨리 왔네
A: 재네들이 들으라고 내가 경적을 울릴게
B: 그들은 여기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동트기 전에 떠났어
A: 우리도 더 일찍 출발했어야 했는데..
- 해설:
빈칸 위의 B에서 브랜드의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브랜드의 자동차)이 우리보다 빨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는 우리가 여기 도착했다는 것을 그들(브랜드의 자동차)이 알게하게끔 경적을 울리겠다고 한다. 빈칸 위의 문맥에서 브랜드의 자동차가 먼저 도착했음을 알 수 있고, 빈칸 뒤에서 우리가 더 빨리 출발 했어야 했는데 라는 문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④번의 "그들이 여기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먼저 떠났음에 틀림없다"라는 말이 들어오는게 자연스럽다.
3. ② 한글에는 치료법을 안내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으나 영어로는 "are using therapy to guide gene tests(유전자검사를 안내하기 위해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반대로 표현해 틀렸다
① what절에 matter(중요하다)라는 자동사를 썼고 명사절에 해당하는 동사 is와 유능한 매니저(competent managers)라는 표현까지 틀린 부분이 없다
③ make money(돈을벌다) 라는 표현과 less 비교급을 much로 강조해 주고 있다. 올바른 문장이다.
④ reflects 라는 반영하다라는 동사를 쓴 것은 문제가 없고 헛갈리는 부분이 A currency's value이다. 사물의 소유격이니까 "A value of currency"라고 써야 한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둘 다 맞는 표현이다.
4. 정답: ② contingent upon = dependent on (~에 의존하는)
① susceptible to ~ 취약한, 영향받기 쉬운
③ obsessed with ~에 몰두한, 사로잡힌
④ supportive of ~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 해설: 조건부 고용제의 편지는 고용제안이 있을 때 사용 될 것이다(되어야 한다) 고용제이란 그 또는 그녀(일 할 사람)가 일을 시작하기 전 신원 조회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③ shallow 피상적인, 얕은 = frivolous 가벼운, 경박한
① complex 복잡한
② polite 예의바른
④ inclusive 경비가 포함된, 폭넓은, 포괄적인.

- 만약 이런 설명들이 독자들에게 너무 깊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나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6. ③ persistent 고집있는, 끈기 있는 = enduring 오래가는, 지속되는, 버티는, 견디는
① temporay 일시적인
② delicate 민감한
④ disgraceful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 Punic Wars라고 알려져 있는 Carthage와의 끔찍한 전쟁들은 로마의 정신속에 오래 지속되는 인상을 남겨 놓았다.
7. ① It also founded that~을 쓸려면 대명사 it이 설립했다 라는 문맥으로 쓰여야 하는데 말이 안된다. 일단 혼동어휘 find의 쓰임을 정리해야 하는데 "find(알다/발견하다) - found - found" "found(설립하다) - founded - founded"이다. It was also found that S V로 바뀌서 it을 가주어로 보고 that 절을 진주어로 봐서 "that S V가 발견되었다"라는 문맥으로 가야 자연스럽다 founded를 was also found로 바뀌준다.
- ② elected는 officials(관리인)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므로 "선출된 관리인들"이라는 의미로 과거분사 elected는 올바르게 쓰였다.
③ local 형용사에 hosts라는 명사를 쓰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여기서 hosts는 집주인 정도로 해석한다.
④ "to pay ~ and stay"로 병렬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
8. 정답: ④
"해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용자친화성을 극대화하고 결과들을 방해하는 오류들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다."
① interested in (~에 흥미가 있는)은 앞에 있는 educators를 꾸며주고 있는 과거분사로 문제가 없고 전치사 in 뒤에 enhancing 동명사를 쓴것도 괜찮으나 문맥상 and의 design은 앞에 있는 in enhancing과 병렬되어야 한다. 그럼 design도 designing으로 바뀌어야 한다.
"해설: 이 책은 신입이든 전문가이든 학생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에 흥미가 있는 교육자들을 위한 것이다.
② than 앞 부분에 Darwin knew와 he collected가 둘다 과거동사로 쓰였다 그런데 than 뒤의 비교대상에는 experts do가 쓰여 현재동사가 쓰였으므로 do를 did로 바뀌어야 한다. 뒤에 과거시점 부사 at the time이 있는 것으로 보아 did가 맞다.
"해설: 다윈은 그가 Teagle 항해에서 수집했던 다양한 종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이런 유기체들을 분류했던 영국의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조금 알고 있었다."
③ 전치사 despite(~임에도 불구하고)는 of와 같이 쓰일 수 없다 of와 같이 쓰이는 전치사는 같은 뜻의 in spite of가 있다.
"해설: 한 사람의 가정들과 편견들에 대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는 도전은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 것이다."
④ "~하자마자 ~하다"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S had hardly/seldom/rarely p.p., before S 과거동사"이다.
여기서 부정어 hardly/seldom/rarely가 앞에 나와 도치 될 수 있는데 그럼 Hardly/seldom/rarely had S p.p로 쓰여야 한다.
did를 had로 바뀌준다.
9. ④ "with 명사 전치사"는 "with 분사구문"으로 쓰여서 "~한 채로"로 해석이 돼서 ④이 한글과 일치한다
① While은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럼 옷을 입으면서 물속으로 걸어갔다는 문맥이 나오므로 틀렸다
② on -ing는 "~하자마자"로 해석되어 틀린다.
③ dress는 "~을 입히다"란 뜻으로 타동사이다. 주어진 한글과 어울리지 않는다.
10. ④ "which는 관계대명사로 쓰여서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 해야 한다. 앞에 선행사 an incident 까지는 좋은데, 뒤에 "an Emirati tourist was arrested"로 완전한 문장이 쓰여서 which가 틀렸다 which를 문맥상 where 정도로 바꿔줄 수 있다.
② refrain from은 "~을 삼가다"로 쓰이고 있고 from은 전치사로서 뒤에 ing를 쓸 수 있다 wearing을 쓴 것은 문제가 없다
11. ① which는 관계대명사로 쓰여서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 해야 한다. 앞에 선행사 an incident 까지는 좋은데, 뒤에 "an Emirati tourist was arrested"로 완전한 문장이 쓰여서 which가 틀렸다 which를 문맥상 where 정도로 바꿔줄 수 있다.
② refrain from은 "~을 삼가다"로 쓰이고 있고 from은 전치사로서 뒤에 ing를 쓸 수 있다 wearing을 쓴 것은 문제가 없다

③ “while -ing”은 “ing 하는 동안”으로 해석한다.

④ ban on “~에 대한 금지”

12. 정답: ②

글의 처음부터 Healing Touch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3번째 문장까지는 Healing Touch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과 소개를 하지만 4번째 문장에 controversial 부분에서 논쟁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논쟁은 “neither ~ nor ~ demonstrated”로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지만 그 다음에 연결사 Nonetheless를 기준으로 “gaining popularity”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전부다 포괄하는 보기는 ② Energy Medicine: Popular but Unproven(에너지 의학: 인기있지만 증명되지 않은)이 적절하다.

13. 정답: ②

글의 초, 중반쯤에 New research가 나온 것으로 보아 글의 전반적인 구조는 “실험/연구-결과”에 해당함을 추론할 수 있고 주제는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다. 글의 후반부에 “They discovered that ~” 부분부터 연구 결과가 언급되고 결과 부분은 12살에서 14살의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더 어린 또는 더 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이므로 답은 ② the tough challenge of parenting middle schoolers(중학생을 양육하는 힘든 일)이 적절하다.

14. 정답: ③

③ locate는 ~을 위치시키다 라는 뜻의 타동사 이므로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한다. 뒤에 전치사 in이 나오고 있으므로 수동태인 is located로 바꿔준다.

15. 정답: ④

첫문장에서 “There is a great difference”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글의 전반적인 구조는 대조/비교임을 알 수 있다. 전체 문맥은 서양과 동양을 비교한다 빈칸 (A) 부분에는 서양인들은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언급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A)에는 이와 관련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uncompromising(타협적이지 않은)이 적절하고 빈칸 (B) 부분은 상황이 점점 변하고 있어서 동양인들이 스스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그럼 (B)는 서양인들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shedding(홀리다, 벗다, 떨어지다)이 적절하다.

16. 정답: ④

④ A majority of legally blind students can participate in class with the help of corrective lenses. (대다수의 시각장애 학생들은 교정렌즈의 도움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첫 문장에 시력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교정렌즈로 시력문제가 교정될 수 있다고만 언급하지 교정렌즈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없다. 7번째 문장에 “many students with vision loss can be taught by means of a modification of usual teaching materials(시력 손실을 가진 학생들은 일반적인 수업자료의 수정을 통해 가르쳐질 수 있다)”로 언급되어 있지만 보기 ④의 교정렌즈를 “수업자료의 수정”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① Not every student with vision loss suffers a visual disability

-> 문분의 두 번째 문장에서 오직 교정이 안될 때만 시력손실이 장애로 여겨진다고 한다.

② Student with vision loss can be taught by modifying class materials

-> 7번째 문장에 “This implies that ~”부터 언급되어 있다.

③ Educato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hildren with a vision problem in class.

-> 마지막 문장 “Classroom teacher should be aware of ~”에서 언급되고 있다.

17. 정답: ①

주어진 문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착취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당신은 이에 놀랄 것이라고 한다. (A)의 however를 기준으로 반전 내용이 시작되면서 당신도 주어진 문장처럼 똑같이 그런 기업들을 지지할 것이다가 다음에 오는 것이 적절하고 그의 부연설명으로 대기업 얘기를 하고 있다 문맥상으로 (B)에서 They가 (A)의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s를 받고 있어 (A) - (B) 순서가 정확하다 (B)에선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광고에 쓰고 있다고 하고 (C)에선 Yet을 쓰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제품광고에 돈을 적게 써야 한다고 언급하므로 (A) - (B) - (C) 순서가 올바르다.

18. 정답: ④

주어진 문장의 첫 단어인 These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These 뒤에 서술어 부분에서 Edith가 분자 수준으로 발생하는 화학적 결합으로부터의 끝없어 보이는 변수를 이해한 것은 가치있었다고 하므로 These 앞에는 화학적 어떠한 실험 부분이 와야 한다. ①, ②, ③이 전부다 지하실을 세라믹 스튜디오로 바꾸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고 ④뒤에서 in the process, she learned~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험과 결과 그 중간인 ④번에 들어가는게 적절하다.

19. 정답: ②

첫 문장이 바로 주제문인데 주제문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anarchy of expertise(전문지식들의 혼란)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똑같은 말은 보기에 less clarity밖에 없다. 첫문장이 주제문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문장부터 to follow the news today ~가 나오고 있어 부연설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첫 문장을 주제문으로 보고 마지막 문장은 주제문의 재진술로 볼 수 있다.

20. 정답: ②

②번에는 처음에 for example이 있으므로 앞 문장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앞문장은 예의바르면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라고 한다. 그런데 for example 뒤에는 친구들과 모국어로 대화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어울리지 않고 ②번 뒤에도 So, 라고 나오면서 갑자기 지위(status) 얘기를 하고 있어 ②번이 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①번에선 겸손하게 행동하면 미국인 친구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①번 뒤에선 다른 한편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라고 하므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③번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앞 문장의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할 의무는 없다와 연결되므로 자연스럽다.

④번은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④번 뒷문장에서 미국인들은 신경쓰지 않고 주의해야 할 몇가지만 빼면 괜찮다고 언급하므로 ④번도 자연스럽다.

총평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총평

어휘: 총 3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평이한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어휘 기본서에 한번씩은 다 나와 있는 표제어들이었습니다.

문법: 문법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정오월 3문제, 영작 3문제, 밑줄 2문제 총 8문제가 출제되어 상당히 비중이 컸습니다. 각 문장의 길어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되지만 의외로 답이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답 이외의 보기들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출제point를 모르면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활영어: 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생활영어부분도 어휘적인 부분보다는 문맥에 의존하여 풀게끔 출제되었고 내용이나 보기 자체가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독해: 독해 문항수가 8문항밖에 되지 않았고 지문의 길이도 20번을 제외하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지문 자체의 난이도도 평이했습니다. 보기를 조금 헷갈리게 꼬아놓았으나 이는 7급에선 흔한 패턴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평이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감 난이도를 떠나서 작년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독해 문항수가 줄었다는 것이 일단 시간을 절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문법이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 나왔으나 답이 되는 것들은 굵직굵직한 출제 point였으므로 착실하게 출제 point 위주로 공부하셨다면 풀 수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선된 최고의 지문들로 상승하는 영어 성적!

조재권 선생님의 독/해/전/략

11/13(화) 개강

**11월, 공시생인 당신이
'독해전략'을 들어야하는 3가지 이유**

**POINT 1.
ALL-KILL 독해전략**



모든 독해지문을 구조적으로 접근,
어떤 유형에도 막힘없이 적용할 수
있는 신개념 독해전략!

**POINT 2.
시험 유형 분석!**



정교한 시험 분석을 바탕으로
출제포인트를 꿰뚫는
독해 유형 엄선!

**POINT 3.
취약 파트 집중 공략!**



3가지 취약파트인
빈칸·문장 순서·글의 흐름에 대한
공략 TIP 제시

'전략독해', 공무원 독해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1월 1일 종강 (8주 과정)

매주 화요일 14시~18시 | 지안공무원학원 1관

수강료: **12만원 (연간반 수강생 무료)**

기존 수강생 50% 추가 할인 (6만원)



1년안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지안공무원학원

www.zianedu.com

빠른상담 및 문의 02.6080.1725

지안공무원학원 1관: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66 영빌딩 2F